

與野 '쌀 직불금' 증인 채택 신경전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논란의 중심은 현역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본인인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김학용 김성희 임동규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역 의원이지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는 만큼 따져 묻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승수 총리와 김학식 감사원장,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도 부정수령 실태에 대한 현 정부의 방치의혹을 밝히기 위해 부를 것"이라며 "부당 수령의

野 "부당수령 의원·한승수 총리 부를 것" 與 "정책 실패 책임자 불러 대안 찾을 때"

혹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을 부르지 않는다면 국회가 현역의원을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강경구 김포시장과 경제계와 언론계 인사 등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증인에 대거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전철철 전 감사원장과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어서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 의혹에 무게를 두는 한나라당에 선수를 치는 등 증인채택에 성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증인으로 선정되더라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 등 국정조사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쌀직불금 국정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남, 김종률, 최규성, 최규식 의원. /연합뉴스

靑, 경제위기 전면 대응체제 구축하나

李 대통령 "현 상황 전대미문의 위기" "최악의 시나리오 염두 비상체제 준비"

국내외 경제·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청와대 기류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주안점이었던 데서 선회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

상황이 엄중할 만큼 그에 비례해 정확한 상황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에 맞춘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직·간접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내년 3, 4월이 되면 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2월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한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도 현 상황을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규정할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는 현 상황이 '경제·금융 위기 국면'임을 명확히 전명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가종합상황실(War Room)에 준하는 대응체제를 꾸려 전면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간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비상체제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전(全) 정부부처가 경계음을 내고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초당적 남북관계 정책협의회 갖자"

민주당 박주선 의원 제안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8일 이산가족,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문제 등 산적한 남북관계 현안을 협의하고 정책을 제안하

기 위한 여·야·시민단체·노동계·종교계·학계·언론계·기업인 등이 함께하는 초당적 차원의 '남북관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아



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난달 UN 총회에서 북한인 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면서도 이란인권결의안에는 기권한 데 대해 "정부의 기본입장과 철학이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며 이종재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쌀 직불금 정부 조사 엉터리"

뵈주기·이중잣대 적용... 불법 판정률 10% 그쳐

민주당은 8일 각급 기관 공무원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실태 조사에서 행정안전부와 농수산식품부의 조사 결과가 확연히 달라 정부측의 원칙 없는 부실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 등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직불금 수령을 자신신고한 공무원 관외경작자 1천549명에 대한 정부측 조사결과, 농식품부는 이 중 25.6%인 397명을 불법수령자로 판정한 반

면 행안부는 10.2%인 158명만을 불법수령자로 판정해 정부측이 이중잣대대로 엉터리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안부가 제출한 자신신고 공무원에 대한 불법수령 조사결과와 농식품부가 제출한 관외경작자에 대한 불법수령 조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행안부의 불법수령 판명자 중 60명을 적법수령으로 판정했고, 행안부는 농식품부의 불법수령 판명자 중 299명을

적법수령으로 조사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행안부의 실태조사 기준이 농식품부보다 허술했기 때문"이라며 "행안부가 기준 설정에서부터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식품부가 일반인 관외경작자 6천7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7%(2천548명)가 불법수령자로 판명됐다"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법수령 판정률보다 한참 높은 것으로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경찰·소방공무원 정년 60세로 통일

국회, 양벌규정 정비법안 등 96개 법안 처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종업원의 과실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 정비법안 69건을 포함해 모두 9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주를 처벌,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비됐다.

이에 국회는 경찰공무원 가운데 직급이 경정 이상의 정년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돼 있는 연령정년을 직급과 상관없이 60세로 통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소방공무원법도 개정해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는 57세로 돼 있는 연령정년을 60세로 단일화

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 경제침체에 본격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8년 끝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했다.

또 귀환 국군포로에게 지원되는 사회정착 지원금을 사기당하지 않도록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는 면제기간 양도와 담보 제공, 압류를 금지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천체망원경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유엔(UN)의 '2009 세계 천문의 해' 선포를 지지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2009 세계 천문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기선씨



직을 두루 거친 뒤 2006년 10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선관위는 또 후임 사무차장에 이종우 법제실장을 선임했다. 이 사무차장은 총무과장과 기획관리과, 기획조정실장, 법제실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영식 전 사무총장 후임으로 이기선(사진) 사무차장을 승진발령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사무총장은 1976년 선관위에 들어와 선거과정과 선거연수원장, 홍보관리과, 법제실장 등의 주요 요

인터네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강학선명회** 12월 13일(토) 오후 2시~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김명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김세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마은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김마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인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승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또 수업을 들었던 예비 대학원 (대입학부 준비생)도 참여

-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공무원)
- 대학원 대학 원생(대학원생)

기간 **1월 2일**

기본과정 (199시간)

MDPass 醫學원

문의 263-5453

북구청 맞은편

전주 255-9119

전북대 병원 앞

500여명에게 100% 합격시켜준 2008년 10월 10일

서울고시학원

www.sggos.com

514-4560